

## 1988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본 협회는 지난 5월 20일 가톨릭의대 강당에서 전국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조성훈교수 사회로 1988년 정기총회와 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회인사에서 협회장 김대군신부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병원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는 지난 일년동안 안팎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써 왔다」고 말하고 「우리들이 받고 있는 아픔을 해소하는 일은 증오와 배타심이 아니라 2000년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환자를 치유하신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있으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봉사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첫번째로 “국민 개보함에 대한 정부시책”(보사부 의정국 지역의료과장 이동모)제하의 강연이 있었고 두번째로 “오늘의 노사문제”(노동부서울장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에 대한 강연과 토의를 가졌다. 종합토의에서 병원에 있어서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호불신요인을 제거하여 상호신뢰위에 노사가 협력하여 병원존립목적인 환자진료라는 사명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노사 공히 성실하게 분규타결에 임해서 환자진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론지었다.



▲ 제39차 세미나 연자의 강연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

88년 무료개안, 5년 8개월 101  
 1507명 = 1753명  
 19 개사  
 1772

## 1988년도 무료개안수술사업

1983년부터 본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영세민 무료개안수술사업은 마지막년도인 금년도 기술목표를 135명으로 잡고 13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중에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105명을 진료하였고 이 사업을 종결하게 되는 11월까지의 기술목표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년간의 총진료실적은 1,760안으로 추정되며 실인원수로 보면 1500여명에게 빛을 찾아주게 된다.

## 담당주교제도 폐지에 따른 회칙수정안 인준 및 승인

지난 1987년 11월 한국주교회의의 추계총회(1987. 11. 16~19)에서 전국단체 담당주교제도의 폐지결정에 따라 본 협회회칙관계부분(회칙 제14-15조)의 담당주교조항을 수정하여 주교회의에서 인준한 회칙수정안을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승인통과하였다(본지회칙참조)

## 가톨릭의료기관 동정

전국의 가톨릭의료기관수는 1988년초 현재 50개였으나 금년중에 3개기관이 폐원하고 2개기관이 새로 개설되어 10월 현재 의료기관수는 49개 기관이다.

### • 폐원의료기관 :

- 성프란치스코의원(강원도, 정선) 1988. 2 폐원
- 평화의 모친의원(경기도, 포천) 1988. 6 폐원
- 옥천성모병원(충북, 옥천) 1988. 9 폐원

### • 신설의료기관 :

- 한독의원(나병원-경남 하동) 1988. 개설
- 성빈센트안산의원(가정의학진료-경기도, 안산시) 1988. 4 개설

## 아시아가톨릭의사회 총회 및 일본의료시설 협회 참가

본 협회 회장단 김대군신부님을 비롯한 병원장들이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시와 구루미시에서 개최된 제9차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및 일본 가톨릭의료시설 협회(우리나라 가톨릭병원협회에 해당)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15일 귀국했다.

이 총회에 앞서 9일에는 구루미시에 있는 성마리아병원초청으로 이번엔 시설 현대화로 새로 본관을 준공한 1,500베드 규모로 고도의 기능을 가진 성마리아병원의 진료면과 의료시설을 시찰하고 양기관이 의료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를 가졌다.

10~11양일에는 일본 가톨릭의료시설협회초청으로 동 협회 24차전국대회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의 가톨릭의료시설에 수반되는 제문제들을 토의하고 협력과 교류를 가지기로 했다.

◇ 총회참가명단 ◇

가톨릭중앙의료원 : 김대군신부, 조규상교수, 조성훈교수, 김중호신부, 유봉운신부, 박용휘교수, 김재호교수, 박양근교수, 방용자수녀, 박성옥수녀, 박래순수녀

메리놀병원장 윤경철신부, 가톨릭병원장 박병원신부, 성분도병원장 서상자수녀, 대구파티마병원장 여귀남수녀, 행정처장 장증태수녀, 마산파티마병원장 이정순수녀, 포항성모병원장 박순이수녀

본 협회, 일본 성마리아병원과 의료기술협정체결

지난 9월 9일 일본 성마리아병원의 초청으로 본 협회 회장단과 병원장이 일본 구루미시에 있는 성마리아병원을 시찰하고 양기관이 의료기술협력에 대하여 협의를 가진바 있었다. 이번 본협회 초청으로 성마리아병원 井手一郎(이데이찌로)병원장이 10월 27일 본 협회를 예방하고 28-2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가을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본 협회와 성마리아병원사이에 의료기술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기관이 인력교류, 학술세미나 및 공동연구등을 통해 의료기술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을 가지게 되는데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韓國가톨릭病院協會와 日本醫療法人  
雪의 聖母會聖마리아病院과의 醫療技術  
協力에 關한 約定書(案)

韓國가톨릭病院協會(以下甲이라 稱한다)와 醫療法人 雪의 聖母마리아病院(以下乙이라 稱한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精神과 教會안에서의 兄弟姊妹의 協力精神에 따라 醫療技術의 向上과 發展을 위한 共同勞力을 하고져 下記의 約定을 締結한다.

1. 協力活動의 內容

1-1 人力交流

醫學研究와 技術習得을 위하여 相互短期 또는 長期人力交流를 한다. 人力交流를 希望하는 甲會員機關은 甲의 會長을 通하여 乙의 長에 要請하여 協議로서 決定한다. 乙이 人力交流를 希望하는 경우도 甲의 會長을 通하여 甲會員機關과 協議로서 決定한다.

人力交流를 위한 旅費는 派遣機關이 負擔하고 滞在期間中の 宿泊, 食事は 滞在機關에서 便宜를 供與한다. 또, 滞在期間中에 있어서의 研修者의 傷病, 事故에 關하여는 派遣機關이 責任을 진다.

1-2 學術세미나, 資料精報交換과 共同研究

學術向上과 病院管理發展을 위해 甲과 乙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學術세미나, 資料情報交換과 共同研究를 遂行한다. 이에 必要한 計劃, 諸經費는 相互協議하여 決定한다.

1-3 甲과 乙은 共同으로 開發途上國에 대하여 醫療協力을 行할 수 있다.

2. 運營委員會

本 醫療技術協力을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設置한다. 運營委員會는 甲과 乙에서 選出된 各 3 名의 委員과 甲의 會長, 乙의 長을 합한 8 名으로서 構成한다. 運營委員會는 協力活動에 關한 計劃, 審議와 其他의 重要事項에 關한 協議를 한다.

運營委員會는 年 1 回 開催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3. 約定의 効力

本 約定은 쌍방이 署名한 날로부터 有効하며 그 期間은 어느 한 쪽이 約定持續의 終結을 希望하지 않는 한 存続한다.

本 約定의 修正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는 運營委員會의 協議를 거쳐 改正한다.

署名日 1988年 10月 27日

韓國가톨릭病院協會長

金 大 鶴 神父

日本醫療法人 雪의聖母會聖마리아病院長

井 手 一 郎